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남성이 불편해하는 몇가지 이야기



원성운
Huffingtonpost
Korea News Editor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여성을 혐오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조사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남성의 '묻지마 살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남성 피의자의 진술은 '여성혐오'에 맞춰져 있었다. 여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여성들은 삼삼오오, 강남역 10번 출구로 모였다. 저마다 각각 애도의 뜻을 담은 메모지를 적었고, 국화꽃을 놓았다. 일부 남성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여성이라서 아니라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의 소행에 불과한 데 굳이 '여성혐오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범죄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 있다.

첫째, 피의자 남성은 화장실에서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몇몇 남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공격하지 않았다.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해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둘째, 피의자 남성은 '여성'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졌다. 평소에 여성으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여성을 향한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혐오도 여성이라는 이유에서라는 진술도 나왔다. 그런 혐오의 끝이 결국 여성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추모 움직임을 보자. 강남역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다. '여성이라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에 흐느끼고 있다. 밤늦은 시각, 음식점에서 노래방에서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무섭고 공포에 떨어야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몰카는 일상화 되어있고, 탈의실 나사못 하나 조



차 불안해하며 늘 살펴봐야 한다. 문명국가가 갖춰야 하는 '안전' '배려' '매너'는 참혹한 수준이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사랑을 속사이며 가진 성관계 동영상 이별 때 협박의 도구가 되고 무차별로 뿌려지는 무지의 사회다. 추모를 하는 여성들은 이런 피켓을 든다.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나"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본 따 "살여주세요" "살아남았다"도 있다.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우연히' '다행히'라고 부르는 '불행한' 사회다.

한국 여성들은 밤이 되면 일상 곳곳에 만연한 공포에 늘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 택시를 타는 일이 그렇다. 남성들은 밤늦게 술에 취해 택시를 탔을 때 목적지를 말하고 편히 자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들은 자신이나 동료 혹은 친구가 탄 택시의 번호판을 외우거나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한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동이다. 택시에 탔을 때도 택시 기사 이름과 차 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다. 택시에서도 가는 내내 다른 길로 가지 않는지를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내내 지켜봐야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일부 남성들은 불편해한다. '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선량한 남성 택시 기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남성들의 폭력적인 시선과 성추행 등 만연해 있는 사회적 문제를 이번 사건을 통해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향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여자가 밤에 왜 쏘다녀' '여자가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라고 반응한다. 이는 고연령의 남성은 물론 어머니뻘의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질타보다는, 여성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차별적인 시선을 보낸다. 마치 남성들이 군대에서 술한 가혹행위에 대해 으레 '맞을만한 짓을 했겠지'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강간을 당할 만한 짓'이나 '가혹 행위를 당할 만한 짓'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한국사회가 강자 위주로 작동되어온 기제에 따라 사회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논리일 뿐이다.

5월 19일 자 KBS 뉴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4대 강력범죄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여성이라고 전한다. 성적인 차별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지만, 눌러져온 억압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다. 여성들은 '나였을 수도 있다'고 망자에 대한 추모를 보낸다. 이런 동조 현상과 개인의 각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 가는 것이 불안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한 지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빨간색 자동차를 구매하려 자동차 매장에 들렀다가 해당 색깔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구매를 만류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같은 사건에서도 차별을 받고 황당한 논리로 억압받고 있다. 부디, 여성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닌 약자에 대한 사회가 다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빌어본다. 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숨을 거둔 한 여성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